

북한, 분단 후 첫 동해도발...접경지역 불안 고조



2015년 8월 경기 연천 포격 이후 7년 만
 북한 미사일 속초 동쪽 57km 해역 탄착

의 안보관광 중단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분단 이후 동해상 NLL 이남으로 도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강원 접경지역의 불안감이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까지 우리 군과 미군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이 속초 이남 강릉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날 우리 쪽 공해상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은 강원도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해역이고, 1996년 북한 잠수함이 좌초해 발견된 지역인 강릉은 속초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로 향하다 속초 동방 57km 해역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탄도미사일이 강릉 동방 해역에서 탄착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불안해했다.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접경지역인 고성군에

서는 북한 도발과 함께 우리 군 경계태세가 2급으로 격상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안보관광지 출입이 통제됐다. ㈜통일전망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민통선 검문소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전하면서 “금일 통일전망대가 휴관된다”고 밝혔다. 통일전망대 직원들도 이날 오전에 제진검문소를 빠져 나와 귀가했다. 전날 제4땅굴 안보전시관에서 폭발물 사고로 장병 2명이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양구군 전방지역 안보관광지도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인제군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도보 체험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고, 철원군은 오는 11일 DMZ 두루미 탐조관광 재개를 앞두고 도내에서 북한 도발 사태가 발생하자 안보관광 중단 장기화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취재본부**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26km 공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 때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설치에 반발한 북한군이 경기 연천에 포격을 가하고 목함지뢰까지 터져 우리 군 장병들이 크게 다치면서 전개된 강원 접경지역

광주·전남 1일 하루 2707명 확진...유행 확산 지속

지난 1일 광주·전남에서 270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에서는 보름 넘게 감염재생산지수(R)가 1.0을 넘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326명·전남 1381명으로 합쳐 2707명이다. 광주·전남 확진자 추이는 지난달 16일 549명, 17일 1462명, 18일 1344명, 19일 1272명, 20일 1157명, 21일 1312명, 22일 1268명, 23일 709명, 24일 1871명, 25일 1937명, 26일 1708명, 27일 1651명, 28일 1814명, 29일 1747명, 30일 980명, 지난 1일 2632명이다. 바이러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광주 1.14, 전남 1.24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달 17일부터, 전남은 지난달 16일부터 1.0 이상을 유지 중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 이상이면 유행 확산으로 판단한다. **정성호기자**

전국민 애도기간에 광주 광산구 외유성 워크숍 논란

주민자치과·주민자치위원 등 90명 충북 단양·제천행
 광산구 “미처 세세하게 못 살피며...진심으로 죄송하다”

광주 광산구 직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기간에 외유성 행사를 강행해 반축을 사고 있다. 2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전남 광산구 공직자·주민자치위원 등 90명(공직자 6명·주민자치위원 84명)이 충북 단양과 제천 일대로 '2022 광산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떠났다. 이번 워크숍은 광산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2차례 특강을 듣고 공을 쌓은 주민자치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그러나 현장체험 명목으로 단양 고수동굴 방문, 청풍호 유람선 체험, 관광 모노레일

탐승 등 외유성 일정이 확인돼 시가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예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을 기리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 공공기관이 외유성 행사를 강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 북구의회도 이달 9일부터 사흘간 제주도로 의정 연수를 가기로 했다. 국가예도기간 선포 이후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달 31일 지역 내 행사 전면 취소 등 긴급회의를 주재한 지 하루 만에 공직자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외유성 워

크숍을 떠났다”며 “이는 공직기강 해이의 전행이다. 광산구의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산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모노레일 체험과 유람선 문화탐방 등은 동별로 희망하는 곳만 견학했다”며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단에서 워크숍 하루 전날 취소 등을 논의했으나 숙박, 외부강사와 주민자치위원 일정이 조율된 탓에 취소가 어려워 경건하게 다녀오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광산구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광산구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 예도기간 중 대다수 행사를 취소했음에도 미처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로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출·퇴근시간대 꽉 막힌 광주 2순환도로 나들목 개선한다

광주시가 지역 내 교통흐름의 대동맥과 같은 제2순환도로의 교통 정체구간을 개선한다. 출·퇴근시간대 꽉 막힌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줄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주요 나들목(IC) 교통 정체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교통량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5곳의 나들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학운·지원(소태)·풍암·서창·신창나들목이다. 실제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시간 당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서창 7600여 대·신창 6000여 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나들목도 비슷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최적의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진·출입로 차선 확장이나 주요 나들목 인접 도로의 신축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순환도로 구조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 속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 줄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과 함께 용역이 끝나는 즉시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